

##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 II)

지 원 모 집 단 위	수험 번호	성 명

### ※ 유의 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한다.
2. 1번 문항은 답안지 앞면의 [문제 1]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2번 문항은 답안지 뒷면의 [문제 2-1]/[문제 2-2]/[문제 2-3]/[문제 2-4]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1번 답안 작성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르되, 분량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로 작성하여야 한다.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2번 답안은 별도로 글자 수 제한이 없으나, 답안 작성 영역의 범위를 넘어 작성한 경우 감점 처리한다.
4.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필 또는 샤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답안,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함)
5. 수정 시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나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6.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 [문제 1] : [가]와 [나]에 나타난 ‘소유’에 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나’의 주장을 분석하시오.  
(501~600자)

#### [가]

세계가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노동을 통해 땅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만들어냈고, 사적 용도로 땅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거기에는 권리의 문제도, 다툼의 여지도 없었다. 노동이 만들어낸 토지 소유권이 토지 공유권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이상한 듯싶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만물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노동이기 때문이다. 담배나 설탕,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는 토지 1에이커와 전혀 돌보지 않는 공유 상태의 토지 1에이커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노동의 이용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그 점을 무엇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예는 아메리카의 몇 개 종족이다. 그들은 땅을 많이 가졌어도 안락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한다. 자연은 그들에게 다른 어느 민족에 못지 않을 만큼 풍부한 물자를 제공했다. 그들은 식량과 의복,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원을 풍부하게 생산하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노동으로써 개선하지 못한 탓에 우리가 누리는 편의의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한다. 그 넓고 풍요로운 영토의 왕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영국의 날뽕팔이보다도 못하다.

— 존 로크, 『시민정부』

#### [나]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대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대지의 모든

부분이 신성한 것이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白人)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대지를 결코 잊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의 품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중략)

모를 일이다. 우리의 방식은 당신네와는 다르다. 당신네 도시의 모습은 홍인의 눈에 고통을 준다. 백인의 도시에는 조용한 곳이 없다. 봄 잎새 날리는 소리나 벌레들의 날개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곳이 없다. 홍인이 미개하고 무지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시의 소음은 귀를 모욕하는 것만 같다. 쪽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못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나는 홍인이라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인디언은 연못 위를 쓴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한낮의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냄새를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으므로 대기가 홍인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백인들은 자기가 숨쉬는 대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 날 동안 죽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악취에 무감각하다.

— 시애틀 추장, 「우리는 결국 한 형제들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sup>1)</sup>가 되고, 백승(百乘)<sup>2)</sup>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 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 이 곡, 「차마설」 (借馬說)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1) 독부(獨夫):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통치자
- 2) 백승(百乘): 백 대의 수레

**[라]**

변수  $y$ 가  $y = \alpha x + \beta + \epsilon$  과 같이 오차  $\epsilon$  을 수반한  $x$  의 함수라고 하자. 이 경우,  $n$  개의 자료  $(x_1, y_1), \dots, (x_n, y_n)$  을 이용하여 계수  $\alpha$  와  $\beta$  를 찾기 위해서 최소제곱법과 최소절대변동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최소제곱법이란 아래 (식1)과 같이  $n$ 개의 자료가 수반한  $n$  개의 오차  $\epsilon_i = y_i - \alpha x_i - \beta$  ( $i = 1, 2, \dots, n$ ) 의 제곱의 합을  $\alpha$  와  $\beta$  의 함수로 이해하고, 이 함수를 최소로 하는  $\alpha$  와  $\beta$  의 추정값  $\hat{\alpha}$  과  $\hat{\beta}$  을 찾는 방법이다.

$$\sum_{i=1}^n (y_i - \alpha x_i - \beta)^2 \tag{식1}$$

최소절대변동법이란 아래 (식2)와 같이 오차의 제곱의 합 대신 오차의 절대값의 합을 사용하여  $\hat{\alpha}$  과  $\hat{\beta}$  을 찾는 방법이다.

$$\sum_{i=1}^n |y_i - \alpha x_i - \beta| \tag{식2}$$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은, 오차를 수반하지 않는 함수  $y = \hat{\alpha}x + \hat{\beta}$  을 추정함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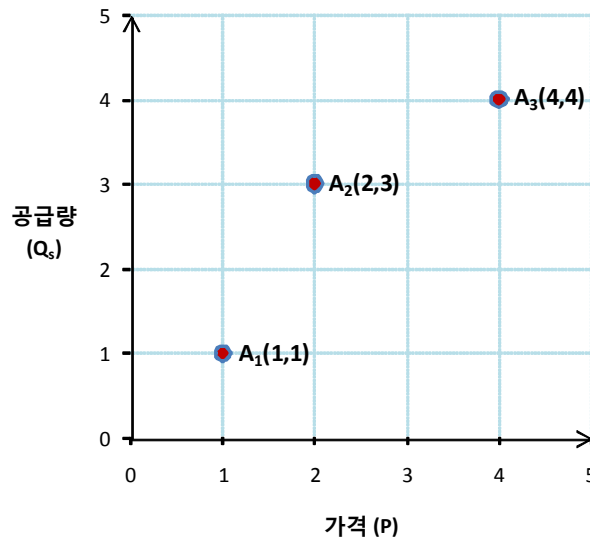
**[마]**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의 가격이다.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양은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곡선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판매하려는 양은 가격이 하락하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가격  $P$  를 변수로 갖는 오차를 수반한 함수이며, 각각  $Q_d$  와  $Q_s$  로 나타낸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것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특정 가격에서 교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매하려는 양과 판매하려는 양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때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 이라고 한다. 시장균형가격을 찾는 것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 [문제 2] : 아래 그림에서 점  $A_1, A_2, A_3$ 은 각각 가격과 공급량의 쌍을 나타낸다. [라]와 [마]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0점]



**[문제 2-1]** 공급곡선이  $Q_s = \alpha P + \beta$  와 같이 가격  $P$  의 일차함수라고 가정할 때,  $\alpha$  와  $\beta$  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예상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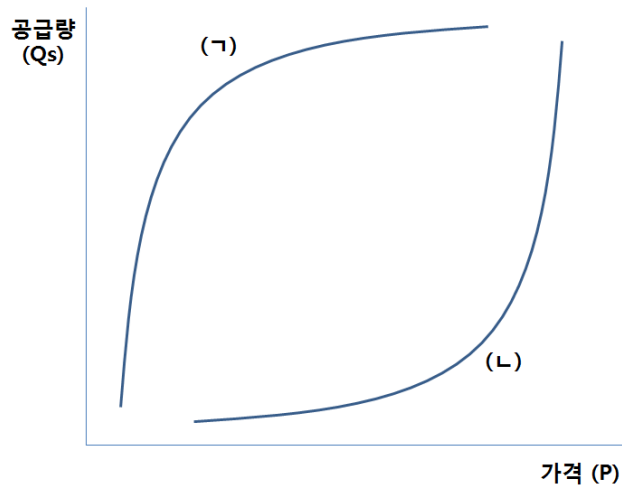
**[문제 2-2]** 그림에서 주어진  $A_1, A_2, A_3$  을 바탕으로, 위 **[문제 2-1]**에서  $\beta = -1$  일 때 일차함의 계수  $\alpha$  를 각각 최소제곱법과 최소절대변동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추정공급곡선을 구하시오. (30점)

**[문제 2-3]** 아래 (정보1)과 (정보2)를 기초로 위 **[문제 2-2]**에서 구한 두 추정공급곡선을 사용하여, 각각의 시장균형가격을 추정하고, 실제 시장균형가격과의 오차를 비교하시오. (30점)

(정보1) 수요곡선은  $Q_d = 5 - P$  이다.

(정보2) 실제 시장균형가격은  $P = 3$  이다.

**[문제 2-4]** 위 **[문제 2-1]** ~ **[문제 2-3]**은 공급함수를 일차함수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급은 가격의 일차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공급곡선이 아래의 그림 (ㄱ) 또는 (ㄴ) 중에서 어떤 것보다 유사할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 (건국대) 2014년도 논술 출제의도, 채점기준 및 예시답안(인문사회계 II)

## 1. 출제의도

우리는 한가지 분명한 대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였다. 논술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시문을 될 수 있으면 교과서에서 택하고, 묻는 문제도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했을 문제로 한정하였다.

[문제 1]에서 문제의 열쇠말은 ‘소유’이다.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소유’ 개념은 현재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동시에 점점 더 많은 현대인들이 그 효용성과 진리성에 대해 의구시하며 대안적 개념을 모색하는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글들은 근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존 로크의 ‘소유’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 서구의 제국주의적·자본주의적 소유개념을 통렬히 비판하며 최근 환경주의자들에게 중요한 문헌이 된 미국원주민의 글, 그리고 현재의 소유 개념을 인정하되 내 것이기보다 근본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논지를 통해 사적소유 개념이 수반하는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동양적 논의가 전개되는 이 곡의 글이다. 본 문제를 통해, 소유에 대한 근현대의 핵심적인 개념인 사적 소유권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지, 소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각각 소유 개념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나아가 소유 개념의 확장된 철학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측정한다.

[문제 2]에서는 사회과학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최소제곱법과 최소절대변동법을 사용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수리적 관계들이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문제 2]의 중요한 출제의도 중의 하나이다.